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요청대상 행위	<input type="checkbox"/> 인터넷망에 위치한 인터넷 전용 PC 등을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 설치된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로 연결하여 그룹 계열사 공동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input type="checkbox"/> 요청대상 행위는 망분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판단이유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를 의미(「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제3호) 하므로,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div>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망분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망에 위치한 PC를 내부 업무망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로 연결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